

[2026] 한주간 쉽게 보는

국내 미래산업 연구 및 정책동향

Domestic Future Industry Research and Policy Trends

No. 133



Contents

※ 2026.06.05.(금) 기준(대상 기간 : 2026.05.28.~2026.06.04.)

□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정책 동향 1

■ 탄소중립 분야 1

- 탄소중립기본법 개정, 현재 시한 초과에도 국회 합의 무산 (2026.06.01) 1
- 노동부, AI·탄소중립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전 기본계획 6월 말 발표 (2026.05.28) .. 1
- 해수부, 남부권 친환경 에너지 허브 향만 육성 본격화 (2026.05.28) 2
- 청주시상수도사업본부, 세계 환경의 날 맞아 탄소중립 실천 다짐 행사 (2026.06.04) .. 2
- 증평군, 초등학생 대상 탄소중립 기후위기 대응 교육 실시 (2026.06.03) 3
- 화성특례시, 제3회 환타지 화성 환경축제 6월 7일 개최 (2026.06.02) 3
- 울진군, 공공청사 내 다회용기 순환 체계 도입 (2026.06.02) 3
- 청주시, 6~11월 시민 참여형 '오늘도 그린' 탄소중립 챌린지 운영 (2026.06.01) 4
- 광주 서구, '탄소중립 그린한끼' 비건 식생활 환경교육 11월까지 운영 (2026.06.01) 4
- 용인특례시, 제5회 환경교육주간 시민 참여형 프로그램 운영 (2026.06.01) 5
- 부산진구, 상반기 환경사랑 탄소중립 실천 그림 전시회 개최 (2026.05.29) 5

■ AI 분야 6

- 춘천시, AI 기반 CCTV 안전관리시스템으로 공공건축 공사현장 사고 예방 (2026.06.02) 6
- 광주 광산구, AI 첨단 재활기술 활용 장애인 건강증진 사업 착수 (2026.06.01) 6
- 아산시, 생성형 AI 활용 보도자료 작성 등 직원 홍보 역량강화 교육 실시 (2026.06.01) 7

- 부천시, AI 음성 분석 기반 '온마음 AI복지콜' 어르신 인지건강검사 추진 (2026.05.29) --7

□ 국가 및 지방기관 연구 동향 8

▪ 탄소중립 분야 8

- 한국수산자원공단 기후블루카본실, 해양생태 복원·탄소중립 기여로 대통령표창 수상 (2026.06.01)8
- 한국수자원공사, 수열에너지를 탄소중립 차세대 재생에너지로 제시 (2026.05.31)8
- 한국원자력연구원, SMR을 탄소중립·에너지 안보의 현실적 대안으로 제시 (2026.05.29) 9
- 부여군농업기술센터, 나눔·탄소중립 담은 '농사랑카페' 운영 개시 (2026.06.03)9
- 대구시 농업기술센터, 대구꽃박람회서 '탄소중립 생활정원 모델관' 선보여 (2026.06.02) 10

▪ AI 분야 10

- 부평구시설관리공단, AI 안전 인증 획득 및 자체감사 A등급 선정 (2026.05.28)10

□ 민간 관련 기관 및 행사(포럼, 세미나, 토론회) 주요 내용 11

▪ 탄소중립 분야 11

- 롯데칠성음료, 2025년 온실가스 6,400톤 감축...2040 탄소중립 목표 순항 (2026.06.04) --11
- 롯데이노베이트, 데이터센터 탄소중립 열관리 기술개발 국가과제 참여 (2026.06.02) --11

▪ AI 분야 12

- NC AI, 한화오션과 조선업 자율 용접 AI 솔루션 공동 개발 착수 (2026.06.04)12
- 엑시나, 연산 가능 메모리 칩으로 AI 메모리 부족 문제 해결 도전 (2026.06.03)13

- AI·데이터센터 전력 수요 급증에 국내 전력기기 업체 역대급 실적 전망 (2026.06.01) 13
- 에스오에스랩·스페이스이아이, 피지컬AI 로봇 학습 데이터 협력 MOU 체결 (2026.06.01) 14
- 현대차, AI 비서 '글레오 AI' 탑재 '더 뉴 그랜저' 출시...SDV 진화 선언 (2026.05.31) 14
- KAI, 전략사령부와 AI·우주·무인체계 기반 첨단 국방전력 발전 협약 체결 (2026.05.29) 15
- KAIST, AI 활용 효소 설계로 미생물 기반 친환경 나일론 원료 생산 기술 개발 (2026.05.31) ... 15
- 국립목포대, 전남도립대와 통합 출범...'탈탄소 AI 글로벌 해양 특성화 대학' 비전 선포 (2026.05.28) · 15
- 알파벳, AI 인프라 투자 재원으로 800억 달러 주식 발행 추진...버크셔도 참여 (2026.06.02) .. 16
- 소프트뱅크, 프랑스에 최대 750억 유로 AI 데이터센터 투자...기대와 회의론 병존 (2026.05.31) 16
- AI 붐에 실리콘밸리 집값 19% 급등...오픈AI 주식으로 매매대금 받는 매물까지 등장 (2026.06.01) · 17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정책 동향

☞ 탄소중립 분야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중앙부처	<p>☐ 탄소중립기본법 개정, 현재 시한 초과에도 국회 합의 무산 (2026.06.01)</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4년 8월 헌법재판소가 탄소중립기본법 제8조 제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올해 2월 28일까지 개정을 요구했으나,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가 개정안 합의에 실패한 채 5월 29일 해산한 상황. 2031~2049년 감축 목표 기준 부재로 미래세대에 과중한 부담을 전가할 우려가 현재 결정의 핵심 근거. - 기후특위는 현재 시한 한 달 전인 2월 3일에야 공론화위원회를 출범시켰고, 시민대표단 300명과 미래세대 대표단 40명이 4일간 숙의·토론을 거쳐 '초기 감축'(오목형 경로) 방안을 4월 13일 기후특위에 보고. 이후 심사소위 세 차례 개최에도 여야 이견으로 결론 도출 실패. - 시민단체는 여야와 정부의 소극적 태도를 비판하며 하반기 국회에서 기후특위 재설치와 조속한 법 개정을 촉구. 기후변화청년모임 빅웨이브 등은 목표 설정에만 행정력이 소모되고 있다며 실행 역량 집중 필요성 강조.
	<p>☐ 노동부, AI·탄소중립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전 기본계획 6월 말 발표 (2026.05.28)</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용노동부가 5월 28일 임영미 고용정책실장 주재로 '산업전환고용안전전문위원회'를 개최, 6월 말 발표 예정인 '산업전환 고용안전 기본계획' 관련 의견 수렴 진행. AI 전환(AI)과 녹색 전환(GX)에 따른 노동시장 충격 대응이 핵심 목표. - 석탄화력발전·내연기관 중심 제조업 등 전통 산업의 구조조정 압력이 증가하는 반면, 반도체·AI·재생에너지 산업에서는 인력 부족이 심화되는 미스매치 상황. 노·사 단체 추천을 받아 위원 4명을 추가 위촉하고 주 1회 이상 회의를 진행하며 현장 의견 반영 예정. - 정부는 지난해 말부터 산업전환 전문가 포럼을 운영해왔으며, 글로벌 주요국의 '정의로운 전환' 정책과 궤를 같이하여 노동자·지역사회 피해 최소화 정책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방침.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p style="text-align: center;">중앙부처</p>	<p>□ 해수부, 남부권 친환경 에너지 허브 향만 육성 본격화 (2026.05.28)</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양수산부가 국무회의에서 발표한 '남부 해양수도권 육성방향'을 통해 울산항을 차세대 수소·암모니아 친환경 병커링 거점으로, 경남을 항만물류 AI 전환 거점으로 지정. AI 전환(AI)과 친환경 전환(GX)을 결합한 '트윈 트랜스포메이션' 패러다임 적용. - 울산항은 LNG에서 메탄올·암모니아·수소로 이어지는 미래연료 전환 인프라를 갖춘 동아시아 친환경에너지 허브로 특화 발전 추진. 경남 진해신항·배후단지 스마트 물류·제조 등 피지컬 AI 테스트베드로 활용 예정이며, 9월 시행되는 SMR 특별법을 발판으로 해양 소형모듈원자로 안전 표준 선점 계획. - 한국해양진흥공사는 블루본드를 2년 연속 발행해 메탄올 선박 등에 자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친환경 풍력발전 운반선과 친환경 항만 투자 조달도 검토 중. IMO의 자율운항선박 규범(MASS Code) 승인과 수소·암모니아 연료 선박 안전 지침 통과로 '자율운항+무탄소 연료' 결합 지능형 선박 시대 전망.
<p style="text-align: center;">지자체</p>	<p>□ 청주시상수도사업본부, 세계 환경의 날 맞아 탄소중립 실천 다짐 행사 (2026.06.04)</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주시상수도사업본부 업무과가 6월 5일 '세계 환경의 날'을 앞두고 생활 속 탄소중립 실천과 친환경 문화 확산을 위한 전 직원 다짐 행사 실시. 기후위기 대응과 지속가능한 친환경 행정 실천이 행사 취지. - 직원들은 청사 내에서 실리콘 컵 등 다회용기 적극 사용으로 일회용품 줄이기, 탕비실에서 미세플라스틱 발생 저감을 위한 친환경 생분해 수세미 사용을 결의. 반복적 업무 환경 속에서도 실질적 탄소 감축 효과 기대. - 업무과는 지난해 9월부터 상수도요금 전자고지 서비스를 시행해 종이 사용과 탄소배출 저감에 기여 중이며, 향후 다양한 자원순환 활동과 친환경 정책을 지속 추진할 계획.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지자체	<p>□ 증평군, 초등학생 대상 탄소중립 기후위기 대응 교육 실시 (2026.06.03)</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충북 증평군이 6월 5일 환경의 날을 맞아 지역 초등학교 1·4학년 학생 120여 명을 대상으로 기후변화 원인과 탄소중립 필요성을 알리는 환경교육 실시. 이론과 체험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운영. - 버려지는 커피 찌꺼기를 활용해 키링을 만드는 업사이클링 체험이 학생들의 큰 호응을 얻었으며, 자원 순환의 의미를 직접 경험하며 환경보호의 중요성을 학습하는 시간으로 구성. - 군은 미래세대의 기후위기 인식 제고와 생활 속 실천을 위해 체험 중심의 탄소중립 교육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
	<p>□ 화성특례시, 제3회 환타지 화성 환경축제 6월 7일 개최 (2026.06.02)</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성특례시 주최·화성시환경재단 주관으로 6월 7일 봉담읍 삼봉근린공원에서 '제3회 환타지 화성' 개최. 시민들이 탄소중립을 쉽고 재미있게 경험하는 참여형 환경축제로, 환경의 날 기념식·탄소감축 아이디어 경진대회·환경 사진 및 웹툰 공모전 시상식 등 진행. - 55개 환경 체험 부스와 '환경 어린이 그림그리기 대회' 운영, 개그맨 출연 '쇼그맨' 공연과 아카펠라 그룹 '나린' 무대 등 문화공연 마련. 공식 포스터·초청장은 생분해성 용지로 제작하고, 행사장 내 다회용기 사용 의무화, 폐박스 활용 안내 사인물 제작 등 운영 전반에 친환경 가치 반영. - 환경에 관심 있는 시민 누구나 무료 참여 가능하며 별도 사전 신청 불필요.
	<p>□ 울진군, 공공청사 내 다회용기 순환 체계 도입 (2026.06.02)</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북 울진군이 탄소중립 실현과 친환경 소비문화 확산을 위해 울진 작은영화관, 아이갯에브리씽 울진군청점과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업무협약(MOU) 체결. 다회용기 대여·회수·세척·재공급이 가능한 순환체계 구축. - 울진 작은영화관은 전국 작은영화관 최초로, 아이갯에브리씽 울진군청점은 경북 아이갯에브리씽 매장 최초로 다회용기 사용 체계 도입. 방문객 대상 이용 안내와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지자체	<p>다회용기 전용 공간 조성 등 탄소중립형 공공청사 조성 사업 공동 추진 예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부문 중심의 다회용기 사용 문화 정착을 통해 1회용품 사용 감소, 폐기물 발생 저감, 지역사회 전반의 친환경 실천 분위기 확산 기대.
	<p>□ 청주시, 6~11월 시민 참여형 '오늘도 그린' 탄소중립 챌린지 운영 (2026.06.01)</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충북 청주시가 시민 탄소중립 실천 독려를 위해 6월부터 11월까지 '청주시는 오늘도 그린 챌린지' 운영. 매월 5일 청주시 탄소중립지원센터 누리집을 통해 '이달의 그린 미션' 공개, 수송·자원순환·에너지 절약·친환경 소비 등 일상 실천 가능 내용으로 구성. - 청주시민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미션 실천 후 인증 사진을 온라인 제출창에 등록하는 방식. 매월 누적 접수 상위 100명에게 1만 원 상당 모바일 쿠폰 지급. - 챌린지 종료 후 12월에는 전체 참여 실적을 합산해 우수 참여자 115명 선정, 1만~5만 원 상당 지역화폐(청주페이) 특별 지급 예정.
	<p>□ 광주 서구, '탄소중립 그린한끼' 비건 식생활 환경교육 11월까지 운영 (2026.06.01)</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광주광역시 서구가 11월까지 창작농성골 커뮤니티센터에서 에코하우스 환경교육 프로그램 '탄소중립 그린한끼' 운영. 먹거리 분야 탄소배출 문제 이해와 비건 음식 체험을 통한 저탄소 식생활 실천이 목표. - 이론교육에서는 기후위기 심각성, 비건 개념·종류, 육식 중심 식문화의 환경 영향 등을 소개하고, 체험교육에서는 학생 대상 비건피자 만들기, 성인 대상 후무스·토마토 마리네이드 만들기 등 맞춤형 요리 실습 진행. 찾아가는 환경교육과 창작뮤지컬 '지구살리기 대작전' 등 학교 현장 프로그램도 병행. - 서구는 주민들이 비건 식생활의 환경적 가치를 이해하고 저탄소 식습관을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지자체	<p>□ 용인특례시, 제5회 환경교육주간 시민 참여형 프로그램 운영 (2026.06.01)</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용인특례시가 6월 5~11일 제5회 환경교육주간을 맞아 전 세대 대상 생활 밀착형 환경교육 프로그램을 시 전역에서 운영. 2022년 환경부 제1호 환경교육도시 지정 이후 매년 다양한 시민 참여 프로그램 확대. - 5일 시청 컨벤션홀에서 시민 105명 참여 '환경 실천 서포터즈' 발대식 개최, 6일 죽전체육공원에서 종이팩 분리배출·재생에너지 체험 등 '탄소중립 조아용' 행사 진행. 9일 용인대덕중학교 ESG 정책 제안 활동, 10일 운학초 생태 체험 교육과 정암수목공원 수생생물 탐사 교육 등도 운영. - 수지환경교육센터에서는 생태학교 9곳 교사 40여 명이 모여 지역 환경 특성 반영 교육 자원 발굴과 교내 ESG 실천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 마련.
	<p>□ 부산진구, 상반기 환경사랑 탄소중립 실천 그림 전시회 개최 (2026.05.29)</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산 부산진구가 6월 1일부터 12일까지 구청 1층 로비 라이트캔버스에서 '상반기 환경사랑 탄소중립 실천 그림 전시회' 개최. 5월 1~15일 관내 중학교·청소년센터·시민 대상 공모를 통해 선정된 총 31점 전시. - 탄소중립 실천·환경보전 주제의 그림 작품과 함께 탄소중립 실천 관련 홍보 영상을 동시 송출, 환경문제의 심각성을 다각적으로 이해하고 기후위기 극복 활동 동참을 유도하는 환경교육의 일환으로 마련. - 하반기에는 초등학생을 비롯한 시민 누구나 참여 가능한 그림 공모전을 통해 전시회를 이어나갈 계획.

☞ AI 분야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지자체	<p>☐ 춘천시, AI 기반 CCTV 안전관리시스템으로 공공건축 공사현장 사고 예방 (2026.06.02)</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원 춘천시가 공공건축 공사현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AI 기반 CCTV 안전관리 시스템 시범사업 추진. 기존 단순 영상 기록·사후 확인 방식과 달리 안전모 미착용·근로자 쓰러짐·위험구역 접근·화재 등 이상 상황을 AI가 실시간 분석·감지하여 현장 관계자에게 즉시 통보하는 시스템. - 11월까지 별말공원 공영주차장, 신북 반다비체육센터, 지역목재 야외공연장 등 춘천시 발주 공공건축 공사현장 3곳에서 시범 운영. 건설현장 특성상 안전사고 위험이 높아 현장 확인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상황에서 사각지대 해소 기대. - 시는 AI 기술을 활용한 현장 안전관리의 사각지대 축소와 근로자 보호 수준 향상을 통해 안전사고 제로화를 추진한다는 방침.
	<p>☐ 광주 광산구, AI 첨단 재활기술 활용 장애인 건강증진 사업 착수 (2026.06.01)</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광주광역시 광산구가 장애인협회 동아리 '다시봄' 회원들과 함께 남부대학교 AI 재활실을 방문, 맞춤형 건강관리 프로그램 진행. 신체기능실증분석실에서 근육 대칭성·보행 패턴 등을 정밀 측정하고 분석 결과에 기반한 개인별 신체 기능 강화 운동 실시. - 수완건강생활지원센터와 남부대학교 RISE사업단 간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CBR) 협약 체결 이후 첫 사업으로, 대학의 첨단 재활장비와 전문 인력을 활용한 장애인 건강관리·재활 지원 강화 추진. - 향후 파킨슨병 환자 자조모임, 장애인보호작업장 근로자 동아리 등으로 참여 대상 확대 예정이며 프로그램 총 5회 운영 계획.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p>□ 아산시, 생성형 AI 활용 보도자료 작성 등 직원 홍보 역량강화 교육 실시 (2026.06.01)</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충남 아산시가 직원 32명을 대상으로 2026년 상반기 직원 언론 홍보 역량강화 교육 실시. 시정 정책 홍보의 중요성 이해 제고, 보도자료 작성 실무와 AI 도구 활용 역량 강화가 목표. - 교육 내용은 홍보전략·보도자료 메시지 개발, 스토리텔링 작성법, 자주 틀리는 표현 교정, 생성형 AI를 활용한 보도자료 작성법 등 실무 중심으로 구성. 챗GPT를 활용한 보도자료 작성 실습과 프롬프트 작성 기법 교육에 중점. - 행정 분야에서 생성형 AI 활용이 확대되는 흐름에 맞춰 변화하는 홍보 환경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교육으로 한국생산성본부 전임교수가 강사로 참여.
지자체	<p>□ 부천시, AI 음성 분석 기반 '온마음 AI복지콜' 어르신 인지건강검사 추진 (2026.05.29)</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기 부천시가 6~9월 4개월간 65세 이상 취약계층 어르신 1,000여 명을 대상으로 비대면 음성 분석 기술 활용 '온마음 AI복지콜' 인지건강검사 사업 추진. AI 콜봇이 전화를 걸어 4개 문항(약 5분)으로 음성 분석하는 방식이며, 웹앱 참여와 생활지원사 가정방문 지원도 병행. - 헬스케어 기업 '에이블테라퓨틱스'의 사회공헌 무상 지원으로 진행되어 별도 예산 투입 없이 민관협력 기반 스마트 복지 모델 구축. 지난해 시범사업에서 어르신 3,062명 대상 검사 실시, 고위험군 371명을 조기 선별하여 232명을 치매안심센터에 연계한 성과 보유. - 올해는 음성 분석 정확도와 참가자 편의성을 보완했으며, 고위험군 분류 어르신은 치매안심센터 연계 정밀 검사와 추적 관리 등 사후 서비스를 지속 지원할 계획.

국가 및 지방기관 연구 동향

☞ 탄소중립 분야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p>☐ 한국수산자원공단 기후블루카본실, 해양생태 복원·탄소중립 기여로 대통령표창 수상 (2026.06.01)</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수산자원공단 기후블루카본실이 해양생태계 회복 및 탄소중립 기여 공로를 인정받아 제14회 바다식목일 기념식에서 대통령표창 수상. 해양수산부와 함께 '바다숲 탄소거래사업'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 추진이 주요 성과. - 갯녹음 현상(백화현상)으로 사막화되는 바다를 살리기 위한 바다숲 조성사업을 통해 해양생태계 복원과 생물다양성 회복에 기여. 민간기업과의 협력을 통한 혁신적 해양 탄소중립 모델 구축이 높은 평가를 수득. - 향후 바다숲 탄소 흡수량 검증 체계 정교화와 다양한 이해관계자 협력을 통해 해양수산 분야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국제적 블루카본 선도 기관으로 도약한다는 계획.
국가기관	<p>☐ 한국수자원공사, 수열에너지를 탄소중립 차세대 재생에너지로 제시 (2026.05.31)</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수자원공사 한병주 수열사업부장이 '제2회 아시아투데이 환경포럼'에서 수열에너지 보급 현황 및 확대 전략 발표. 하천수·댐용수·해수 등에 저장된 열을 냉난방에 활용하는 수열에너지는 날씨·밤낮 영향 없이 24시간 공급 가능한 재생에너지로 주목. - 롯데월드타워·삼성동 무역센터 등에서 30~70% 에너지 절감 효과 확인, 스마트팜에서는 공기열 대비 연평균 44%, 여름철 최대 76%까지 전력 사용량 절감. 강원 춘천 소양강댐·충북 대청댐을 활용한 수열에너지 클러스터 사업 추진 중이며, AI 데이터센터 냉각 수단으로도 적용 가능성 확대. - 초기 인프라 투자 비용이 확산의 걸림돌이나, 기존 광역 상수도관·정수장 공급 관로를 활용하면 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 가능. 물을 소비하지 않고 관로 내부 물에서 열만 추출하는 기술로 물 흐름에 영향 없이 기존 인프라 활용이 가능하다는 설명.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국가기관	<p>□ 한국원자력연구원, SMR을 탄소중립·에너지 안보의 현실적 대안으로 제시 (2026.05.29)</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원자력연구원 임채영 원자력진흥전략본부장이 광주경영자총협회 금요조찬포럼에서 'SMR시대, 광주전남의 선택은'을 주제로 강연. SMR(소형모듈원자로)은 전기 출력 300MW 이하 소형 원자로로 공장 모듈 제작 후 현장 조립 방식으로 건설 기간 단축과 초기 투자 부담 경감이 장점. - 글로벌 SMR 시장은 연평균 8.9~27.7% 고성장이 전망되며 2034년 약 140조 원 규모로 확대 예측. AI 데이터센터 전력 수요 급증으로 마이크로소프트·구글·아마존 등 빅테크 기업이 SMR 기업과 직접 협력·투자에 나서는 추세이며, 재생에너지의 간헐성과 공급 한계를 보완하는 현실적 대안으로 평가. - 한국은 2012년 세계 최초 상업용 SMR 인허가를 받았으나 후쿠시마 사고로 상용화 기회를 놓은 상황. 임 본부장은 실증 경험 확보가 수출 경쟁력의 핵심이라며 호남권에 국책기관·실증 인프라의 균형 배치와 지역민 공동투자 융합 비즈니스 생태계 구축 필요성 강조.
지방기관	<p>□ 부여군농업기술센터, 나눔·탄소중립 담은 '농사랑카페' 운영 개시 (2026.06.03)</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여군농업기술센터가 한국생활개선부여군연합회와 센터 내 휴게 공간 '농사랑카페'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교육생·방문객·직원에게 쾌적한 휴식 공간 제공과 함께 자율 기부 방식의 지역사회 나눔, 탄소중립 실천이 목표. - 커피 1잔당 1,500원, 음료 1캔당 1,000원의 권장 후원금은 최소 재료를 제외하고 지역사회 어려운 이웃 지원에 사용 예정. 일회용품 사용을 전면 제한하고 다회용기 비치 및 전용 텀블러 세척기를 설치해 친환경 휴게 문화 정착 추진. - 공공기관 탄소중립 실천에 발맞춰 센터 내 일회용 쓰레기 배출을 획기적으로 줄이고, 이웃 돕기를 실천하는 소통의 장이자 모범적 친환경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것을 기대.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지방기관	<p>□ 대구시 농업기술센터, 대구꽃박람회서 '탄소중립 생활정원 모델관' 선보여 (2024.06.06.02)</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구광역시 농업기술센터가 6월 4~7일 엑스코(EXCO)에서 열리는 '제17회 대구꽃박람회'에 참가, '도심 속 숨겨진 생명의 정원'을 주제로 '탄소중립 생활정원 모델관' 조성. 사과나무·블루베리 등 과수류와 채소·화훼류를 활용한 텃밭형 정원 모델 제시. - 모델관은 쉽이 있는 치유마당·도심 속 미니 과수원·우리집 한평 텃밭·포토존 등으로 구성. 시민농업 홍보부스에서 도시농업 교육·지원사업 소개, 반려식물 체험 프로그램도 병행 운영. 5일에는 도시농업 특강으로 달성토성마을 골목정원 조성·도시재생형 도시농업 모델 사례 공유. - 대구도시농업연구회·마스터가드너 회원들이 '박쥐란 행잉 인테리어 만들기', '푸테리스 심기' 등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도시농업의 가치를 알릴 계획.

☞ AI 분야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지방기관	<p>□ 부평구시설관리공단, AI 안전 인증 획득 및 자체감사 A등급 선정 (2026.05.28)</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천 부평구시설관리공단이 (사)도시재생안전협회로부터 'AI 안전 인증' 획득. AI 모니터링·스마트센서·IoT 기반 안전관리·AI 의사결정 지원 체계 등 디지털 기반 안전관리 수준을 종합 평가한 인증으로, 공단의 스마트 안전관리 체계 구축 성과를 인정. - 공단은 AI 기반 챗봇·보이스봇 시스템을 구축하여 전 사업장 시설 이용 안내와 민원 응대를 실시간 제공하고, 부평남부체육센터 스마트 교통안전시스템·화재안전 통합관리 시스템·AI 지능형 불꽃감지기 등 다양한 AI·IoT 기반 안전관리 사업을 추진.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지방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사원 '2026년 공공기관 자체감사활동 서면심사'에서도 우수 등급인 A등급을 획득, 전국 86개 기초 지방공기업 중 종합 4위를 기록하며 감사 독립성·전문성·내부통제 체계에서 고르게 높은 평가 수득.

민간 관련 기관 및 행사(포럼, 세미나, 토론회) 주요 내용

☞ 탄소중립 분야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민간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p>☐ 롯데칠성음료, 2025년 온실가스 6,400톤 감축...2040 탄소중립 목표 순항 (2026.06.04)</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롯데칠성음료가 재생에너지 확대·설비 개선 등을 통해 2025년 온실가스 배출량 약 6,400톤 감축 달성. 전년 대비 약 7%, 2018년 대비 약 17% 감축에 성공하며 2021년 선언한 '2040 탄소중립' 목표 이행 순항. - 감축의 최대 비중은 군산공장 바이오가스 발전 설비로 약 5,000톤 절감. 주정 생산 부산물을 활용해 전기·스팀을 생산하며, 발전량은 약 9GWh로 공장 전체 전력의 절반 수준(서울시 약 2,500가구 연간 전력량에 해당). 태양광 설비 5곳에서 약 460톤, 대전 매립가스(LFG) 연료 전환으로 약 380톤, 전기차 누적 630대 도입으로 약 550톤 추가 감축. - 올해 약 1만 톤 이상 온실가스 감축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ESG 경영 강화를 통해 업계 모범 사례 구축과 미래세대를 위한 환경 개선에 지속 투자한다는 방침. <p>☐ 롯데이노베이트, 데이터센터 탄소중립 열관리 기술개발 국가과제 참여 (2026.06.02)</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롯데이노베이트가 아주대학교 산학협력단 주관 컨소시엄에 합류하여 '데이터센터 탄소중립을 위한 열관리 기술개발' 과제 수행.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KEIT) 주관 '2026년도 배터리·전기전자 분야 신규 연구개발' 과제의 일환으로, 한국기계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민간기업	<p>연구원 · 중앙대학교 · 에스엠인스트루먼트와 함께 약 5년간 공동 연구 수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광센싱 기반(DTS) · AI 열관리 시스템, 고효율 인랙(In-Rack) 냉각 시스템, 실제 데이터센터 실증 등 핵심 기술 조기 확보가 목표. 서울 · 용인 데이터센터에서 PUE 1.2 이하 달성 시 연간 약 2만 2,000톤 탄소배출 감소 효과 기대, 국내 데이터센터 전체에 적용할 경우 연간 약 68만 4,000톤 저감 가능 분석. - 확보한 핵심 기술을 DBO(설계 · 구축 · 운영) 사업 모델에 적극 활용하여 차별화된 친환경 데이터센터 솔루션 제공과 시장 경쟁력 강화 추진 계획.

☞ AI 분야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민간기업	<p>☐ NC AI, 한화오션과 조선업 자율 용접 AI 솔루션 공동 개발 착수 (2026.06.04)</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NC AI가 한화오션의 '비전 인식 기반 용접 전용 모델 및 협동로봇 기반 자율 용접 모델 개발' 과제를 수주, 선박 건조 핵심 공정인 용접 작업에 AI 비전 인식 · 로봇 제어 기술을 접목한 자율 용접 솔루션 구현 목표. 기존 자동화 설비의 정해진 경로 반복 수준을 넘어 로봇이 용접 부위를 스스로 인식하고 실시간 최적 작업을 수행하는 데 초점. - 조선소 용접 환경은 강한 아크광 · 불꽃 · 용접 분진 · 렌즈 오염 등으로 AI 비전 인식 적용이 난해한 분야. NC AI는 차세대 산업 특화 비전언어모델(VLM) '배키 비전(VAETKI Vision)'을 적용하며, 향후 시각 · 언어 · 행동 결합 VLA 모델로 확장 예정. - 개발 완료 시 작업자 지시에 따라 로봇이 용접 대상 · 작업 환경을 실시간 분석하고 토치 각도 · 속도 등을 자율 제어하는 시스템 구현 기대. NC AI는 해당 기술을 한화오션 상선 및 특수선 건조 공정에 적용하여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계획.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민간기업	<p>□ 엑시나, 연산 가능 메모리 칩으로 AI 메모리 부족 문제 해결 도전 (2026.06.03)</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팹리스기업 엑시나가 데이터를 GPU·HBM으로 보내 처리하는 기존 방식 대신 메모리 반도체 바로 옆에서 처리하는 연산 가능 메모리 칩 'MX1'을 개발. DDR5 D램·SSD 같은 메모리에 코어(연산장치)가 연결되어 불필요한 데이터 이동을 감소시켜 필요한 메모리 반도체 수량 절감 가능. - AI 추론시장 개화에 따라 KV캐시(대규모언어모델의 과거 계산 내용 재사용 저장) 문제가 병목으로 부상하는 상황에서, CXL(Compute Express Link) 기술 기반으로 서버 내 메모리 공유와 데이터 효율성 향상을 실현하는 접근. 실리콘밸리의 아스테라랩스·마벨테크놀로지 등이 유사 제품을 제조하는 가운데 하이퍼스케일러 중심으로 도입 시작. - 지난해 하반기부터 주요 파트너들과 PoC(개념검증) 진행 중이며, 하반기 차기 제품 테이프아웃과 양산을 목표. 삼성전자 파운드리 4나노 공정에서 생산 계획.
	<p>□ AI·데이터센터 전력 수요 급증에 국내 전력기기 업체 역대급 실적 전망 (2026.06.01)</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성형 AI 확산에 따른 데이터센터 건설 경쟁과 미국·유럽 노후 전력망 교체 수요가 맞물려 변압기·차단기·전력 케이블 등 핵심 전력기기 수요 급증. 효성중공업 수주잔고 약 15조 1,000억 원, HD현대일렉트릭 약 11조 5,000억 원 등 사상 최대 수준의 일감 확보. - 미국 시장이 성장세를 주도하며, 효성중공업은 1분기 4조 1,745억 원 신규 수주 중 절반 이상을 미국에서 확보. HD현대일렉트릭은 울산공장 증설·미국 앨라배마주 제2공장 건설, 효성중공업은 미국 멤피스 초고압 변압기 공장 증설에 착수하는 등 생산능력 확대 진행 중. - 국내 전력기기 수출은 2021년 120억 달러에서 2025년 167억 달러로 증가했으며, 올해 1~4월 누적 수출도 전년 동기 대비 3.8% 증가한 56억 달러 기록. AI 시대 전력 수요 장기화 전망에 따라 수출·수주 모두 사상 최대 경신 가능성 제기.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민간기업	<p>□ 에스오에스랩 · 스페이스에이아이, 피지컬AI 로봇 학습 데이터 협력 MOU 체결 (2026.06.01)</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라이다 기업 에스오에스랩이 로봇 훈련 데이터 전문기업 스페이스에이아이와 피지컬AI · 로보틱스 학습 데이터 구축을 위한 MOU 체결. 라이다 기반 공간 인지 기술과 물리 시뮬레이션 기반 로봇 학습 데이터를 연계한 차세대 로봇 학습용 데이터 취득 · 검증 모델 구축 추진. - 스페이스에이아이는 자체 물리엔진 '피즈그랩젠(PhysGraspGen)' 기반으로 로봇의 물체 파지 · 이동 시뮬레이션을 수행하며, 실물 로봇 검증에서 84.2%의 심투리얼(Sim-to-Real) 성공률 기록. 엔비디아 · 대만 스타랩 공동 운영 APAC AI 액셀러레이터 프로그램에 국내 기업 유일 선정. - 엔비디아 GTC 2026 타이베이에서 라이다 기술과 결합한 피지컬AI 데이터 솔루션 공개 예정이며, 대만 현지 제조업체 · OEM 기업과의 협력 기회도 모색 계획.
	<p>□ 현대차, AI 비서 '글레오 AI' 탑재 '더 뉴 그랜저' 출시...SDV 진화 선언 (2026.05.31)</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대자동차가 7세대 페이스리프트 '더 뉴 그랜저'를 출시하며 소프트웨어 중심 자동차(SDV)로의 진화 선언. 현대차 최초 적용된 차세대 인포테인먼트 플랫폼 '플레오스 커넥트'와 생성형 AI 비서 '글레오 AI'가 핵심. 17인치 대형 디스플레이와 HUD(전방 표시 장치)로 주행 중 시선 분산을 획기적으로 저감. - 글레오 AI는 “통풍시트 켜줘“, “에어컨 온도 낮춰줘“ 등 음성 명령에 반응하며, 운전석에서 “창문 열어줘“ 후 조수석에서 “나도“라고 말하면 위치를 파악해 조수석 창문을 내리는 맥락 이해 능력도 시연. 다만 일부 복합 명령이나 서드파티 앱 연동 등에서는 아직 발전 여지 존재. - 전자 제어 서스펜션이 젖은 노면에서도 안정적 접지력을 유지하는 등 주행 기본기는 그랜저 명성에 부합. 소프트웨어 중심 미래차로 가는 과도기적 이정표로 평가.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p>민간기업</p>	<p>□ KAI, 전략사령부와 AI·우주·무인체계 기반 첨단 국방전력 발전 협약 체결 (2026.05.29)</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전략사령부와 미래전 대응 및 첨단 국방전력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MOU) 체결. AI·우주·무인체계 등 첨단기술 기반 미래 전장 환경에 필요한 전략전력 소요 공동 발굴, 정례 전문가 세미나·인적 교류 확대 추진. - KAI는 KF-21을 AI 기반 무인기·저궤도 위성·첨단 센서·지휘통제체계를 연결하는 차세대 공중전투체계 중심 플랫폼으로 발전시킬 계획이며, AI 파일럿 'K-AILOT' 기술로 무인기 임무 판단·상황 인식·유무인 협업 운용을 고도화 중. - 국방부 '국방혁신 4.0'의 AI 과학기술 강군 육성 방침과 맞닿아 있으며, 감시·정찰·정밀타격·지휘통제·우주 기반 정보 활용 등 분야에서 민·군 기술 시너지 기대.
<p>대학교</p>	<p>□ KAIST, AI 활용 효소 설계로 미생물 기반 친환경 나일론 원료 생산 기술 개발 (2026.05.31)</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KAIST 이상엽 특훈교수 연구팀이 시스템 대사공학 기술을 활용, 재생 가능 탄소 원인 글리세롤로부터 나일론 6·나일론 6,6의 핵심 원료(아디픽산·헥사메틸렌디아민·엡실론 카프로락탐)를 생산하는 대장균 기반 플랫폼 개발. 석유화학 의존 나일론 원료의 바이오 기반 생산 가능성 제시. - 두 종류의 대장균이 생산을 분담하는 설계와 AI를 활용한 핵심 효소 성능 개선, '시간차 공배양' 방식 적용이 핵심 방법론. 아디픽산 리터당 6g, 헥사메틸렌디아민 230mg/L, 엡실론 카프로락탐 808µg/L 생산 달성으로 글리세롤 원료 직접 생산 사례 중 세계 최고 수준. - 연구 결과는 국제학술지 PNAS에 게재되었으며, 과기정통부의 석유대체 친환경 화학기술개발사업과 합성생물학 핵심기술 개발사업 지원으로 수행. <p>□ 국립목포대, 전남도립대와 통합 출범... '탈탄소 AI 글로벌 해양 특성화 대학' 비</p>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대학교	<p>전 선포 (2026.05.28)</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립목포대학교와 전남도립대학교가 대학 통합 출범을 공식 선언, 전남권 거점 국립대 체제 구축. 교육부·전라남도·지역 대학 총장·교직원·학생 등 700여 명이 참석한 출범식에서 3대 비전 발표. - 통합 대학은 '탈탄소 AI 대전환 기반 글로벌 해양 특성화 대학 육성'을 첫 번째 비전으로 제시, 글로벌사이언스파크(GSP)·조선해양산업 AI 실증센터 구축·RE100 산업단지 연계 산학협력 확대를 추진 계획. 7개 지역 특성화 캠퍼스 기반 4년제·2년제 연계교육체계 구축도 방침. - 교육부·전라남도과 대학통합 이행 협약 체결, 향후 5년간 통합대학 안정 운영과 지역혁신 생태계 구축을 위한 협력 방안 포함.
해외	<p>□ 알파벳, AI 인프라 투자 재원으로 800억 달러 주식 발행 추진...버크셔도 참여 (2026.06.02)</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글 모회사 알파벳이 AI 반도체·데이터센터 투자 확대를 위해 800억 달러(약 121조 원) 규모 주식 발행 패키지 추진. ATM 프로그램 400억 달러, 보통주·의무 전환우선주 공모 300억 달러, 버크셔해서웨이 대상 100억 달러 투자 계약으로 구성. - 투자 확대의 중심에는 자체 AI 반도체 TPU(텐서처리장치)가 있으며, 엔비디아 AI 가속기를 대체할 수 있는 선택지로 주목. 아나트 아슈케나지 CFO는 2027년 설비 투자가 2026년 예산 최대 1,900억 달러를 크게 상회할 것이라 언급하였으며, 블룸버그 인텔리전스는 내년 설비투자 3,000억 달러 가능성 분석. - 스페이스X·엔트로픽·오픈AI 등의 상장 추진 과정에서 알파벳의 대규모 주식 발행이 투자자 자금을 흡수할 수 있다는 변수로 작용 가능. 골드만삭스·JP모건체이스·모건스탠리가 공모 주관. <p>□ 소프트뱅크, 프랑스에 최대 750억 유로 AI 데이터센터 투자...기대와 회의론 병존 (2026.05.31)</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손정의 소프트뱅크 회장이 프랑스 북부 오드프랑스 지역에 2031년까지 3.1GW 용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해외	<p>량 AI 데이터센터를 구축하기 위해 1단계 450억 유로 투자, 2GW 추가 확장 포함 시 총 750억 유로(약 131조 8,000억 원) · 5GW 규모. 뉝케르크 · 보스켈 · 부체인 3 곳이 주요 입지이며, 슈나이더 일렉트릭이 핵심 파트너로 참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크롱 대통령의 '소버린 AI' 구상과 손 회장의 유럽 AI 사업 확대 전략이 맞물린 결과. 원전 기반 안정적 저탄소 전력 공급과 신속한 인허가가 투자 유치의 결정적 요인. EDF는 폐원전 부지를 데이터센터로 전환하는 방식으로 참여. - 다만 자금 조달 능력 · 실현 가능성에 대한 회의론도 존재. 소프트뱅크는 오픈AI 지분 담보 대출을 100억 달러에서 60억 달러로 축소한 바 있으며, AI 인프라 1GW당 총비용 약 500억 달러 추산. PF 파트너 · 최종 고객사 확정이 투자 현실화의 핵심 분기점.
	<p>□ AI 붐에 실리콘밸리 집값 19% 급등...오픈AI 주식으로 매매대금 받는 매물까지 등장 (2026.06.01)</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I 스타트업과 빅테크 엔지니어가 몰린 실리콘밸리 집값이 급등, 부동산 플랫폼 질로에 따르면 올해 샌프란시스코 집값 전년 대비 19% 상승, 주택 평균 판매 기간 14일(전년 20일 대비 단축). 방 1개짜리 아파트 평균 월세 4,000달러로 1년 전 대비 21% 이상 급등. - 매물 부족으로 '방 구하기 전쟁'이 벌어지며, 집을 어떻게 유지할지 자기소개서를 제출하고 웃돈까지 없어야 겨우 구할 수 있는 상황. 한국 기업 주재원들도 구하기 어려움을 토로. - 앤스로픽 · 오픈AI의 IPO 기대감이 집값을 부추기는 가운데, 부동산 매매 대금을 오픈AI 주식으로 받았다는 매물까지 등장(샌프란시스코 침실 3개 주택, 매도 희망가 299만 5,000달러). 매물 게시 24시간 만에 문의 쇄도.

※ 본 발간물은 제주연구원(연구기획전략실)에서 온라인 상의 자료를 조사하여 재정리한 것으로, 제주특별자치도의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